

# 기술에 대한 예술의 믿음



홍경안 역  
시시일과

기술의 발전이 일상을 넘어 예술의 영역으로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로 인해 낯선 형태의 예술이 등장하고, 예술 창작의 전통적인 개념마저 서서히 변화하고 있다. 실제로 기술은 예술가들에게 창의적인 도구로 사용되고 있으며 기술을 통해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롭게 영역 간 경계 없는 작업을 발표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제아무리 빠어난 기술도 예술의 본질적인 요소인 인간의 감정, 경험, 직관을 대체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한계가 명확하다. 기술이 과연 예술의 미래인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이에 미술관을 포함한 예술 기관에선 당대 흐름을 반영하는 차원에서 기술과 예술의 융·복합 전시를 기획하면서도 전시점과 방향에 대한 논의도 빼놓지 않고 있다.

울산시립미술관은 오는 11월 14일부터 내년 2월 16일까지 '예술과 인공지능'을 주제로 한 특별전을 연다. 독일의 유명 작가이자 무빙 이미지 제작자인 히토 슈타이얼

(Hito Steyerl)을 포함해 스테파니 딘킨스(Stephanie Dinkins), 오묘초(Omyocho) 등 모두 20여명의 작가들이 참여하는 이번 전시는 예술 창작의 원형에 초점을 맞춘다. 더불어 예술과 기술 융합의 시대를 4개의 섹션(기술과 예술의 만남, 예술의 본질 등)으로 나눠 조망한다. 미술관은 전시 기간 중국내외의 전문가를 초빙해 동시대 기술과 예술의 조류를 진단하는 포럼을 연계 행사로 개최한다. 포럼에선 예술가가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떤 방식으로 인간적 감성을 담아낼 수 있는지 등을 짚어본다.

영등포문화재단도 11월 4일까지 융복합 기술탐구 기반 전시 '시간과 이야기(Time and Narrative)'를 선보인다. (주)농협하나로마트에서 지난 24일 개막한 해당 전시는 문화 도시 특화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며, 김신일, 비숍(BIHOOP), 김동현, 최종운, L.A.B, 이지연, 소수빈, 크사베리 콤퓨터리(PL, Ksawery Komputery), 이은정 & 조혜정, 네비게이터, 티슈오피스 등 선정 작가와 기획 작가 총 18인이 함께한다.

재단 역시 포럼(11월 3일)을 통해 로컬 문화와 예술이 공존하는 영등포의 지역성을 고찰한다. 영등포라는 장소를 바탕으로 기술과 예술의 동행이 인간 삶에 어떤

작용하는지를 살핀다.

기술과 예술에 관한 전시와 담론 형성을 위한 학술행사는 종종 있어 왔다. 최근만 해도 융·복합 콘텐츠의 창·제작을 중심으로 하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ACT(Art & Creative Technology)를 비롯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예술과 기술융합지원 사업'에 의한 여러 프로그램 및 국제컨퍼런스가 펼쳐졌다. 이 밖에도 국립현대미술관, 대전시립미술관, 아트센터나비 등, 기술과 예술의 창조적 가능성에 주목하고 예술의 미래를 접해보는 무대는 적지 않았다. 서울문화재단의 서울융합예술페스티벌(Unfold X 2024)도 오는 11월 7일 개막을 앞두고 있다.

물론 지금까지 미술관과 기관에 소개된 전시들은 높은 기술력을 자랑할 뿐만 아니라 예술의 정의에 부합한다고 보기엔 곤란한 경우가 드물지 않았다. 학술 프로그램 또한 일반론에 머무르기 일쑤였다.

그럼에도 기술과 예술의 상호 작용이 서로의 한계를 확장할 것이라는 기대와 새로운 경험과 가치를 창출하리라는 믿음은 유효하다. 삶든 좋든 기술에 대한 예술의 관심은 거스를 수 없는 동시대 미술의 한 현상이라는 것도 분명하다. /미술평론가

# 왜 나는 조그만 일에만 분개하는가



기저수첩  
서예진  
(정치경제부)

'왜 나는 조그만 일에만 분개하는가.' (김수영,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중) 그런 날이 있다. 운전을 하다가 '깜빡이'도 없이 냐다 끼어드는 앞차. 양쪽으로 5m 거리에 횡단보도가 두 개나 있음에도 숨 쉬듯 무단횡단을 하는 동네 사람들. 퇴근시간 지하철에서 내가 내리기도 전에 먼저 타는 사람들. 걸어가다 먼저 부딪쳐놓고 사과를 없이 '아이고'라는 한마디만 남기며 떠나는 이. 빠른 속도로 내달리다 사람을 칠 뻔 했지만 그냥 썩 하니 가버리는 전동킥보드 운전자. 이런 일을 겪고 화를 내는 날이 있다.

그럴 때 입에서는 험한 말이 튀어나온다. 그 험한 말들을 지면상으로 옮길 수는 없다. 어떤 이는 의자 다리에 새끼발가락을 찌어 소리없는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아야 한다. 어떤 것은 아예 세상에 존재한 적 없는 양 소멸해야 한다.

그러니까, 저런 소소한 것이 거슬릴 때 분노 지수가 치솟는 날이 있다. 사실 이것은 별 의미 없는 분노다. 화를 낸다고 바뀌지 않아서다. 일상의 단면만 보고 쉽게 분노를 표출해버린 셈이다.

김수영 시인이 살아가던 1960년대와 다르게, 방구석에서 '거악(巨惡)'을 욕하는 것도 아주 쉬운 일이 됐다. 문제는 금방 잊는다. 그렇게 쉽게 잊는다면, 그건 '거악' 인걸까 '조그만 일'인 것일까.

곧 이태원 참사 2주기가. 아무 것도 하지 못하고 안타까워 하다가 2년이 지났다. 이유도 모른 채 떠난 159명의 희생자를 잠시 추모했을 뿐, 그 뒤에 어떤 조치가

이뤄졌는지 알지 못한 채 2년이 지난 시간이 흘렀다.

그 사이 국회에서는 여야가 함께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우려곡절 끝에 통과됐다. 하지만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되는 데 시간을 쓰고 있다. 조사가 시작되기까지 유족의 마음은 또 한번 타들어갈 터다.

그러나 내가 방구석에서 분개만 하며 시간을 보낸 사이, 내 마음은 그 일을 '조그만 일'로 만들어 버렸다. 159개의 유족을 소멸시킨 일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보지 않았다. 조롱하는 사람을 경멸했지만, 남은 이들의 슬픔을 생각해보지 않았다. 1심 재판 결과를 보며 잠시 화를 냈을 뿐이다. 그렇게 2주기를 맞았고, 나는 또 조그만 일에만 분개하는 부끄러운 사람이 됐다.

'왜 나는 조그만 일에만 분개하는가.' /syj@metroseoul.co.kr

## 오늘의 운세 10월 28일 (음 9월 26일) <http://www.saju4000.com>

- 쥐**  36년생 사생하는 사람이 주변에 많다. 48년생 그냥 지나친 사람이 은인일 수 있으니 정성으로 대하라. 60년생 창의력이 발휘되고 목표가 달성되는 날. 72년생 오지람으로 하루도 바람 잘 날이 없다. 84년생 주변의 장씨가 도와주는 날.
- 소**  37년생 이기적인 마음으로 실수가 따른다. 49년생 받기보다 베푸는 하루. 61년생 인사가 만사이니 주변인을 챙기는 것이. 73년생 감정을 키워나가는 것보다 이성적으로. 85년생 뒤늦은 투자는 손기능보다 역기능일 수도 있으니 심사숙고.
- 호랑이**  38년생 긍정적인 사고가 복을 부른다. 50년생 우물에서 송눈 찾기 말자. 62년생 가다 리던 곳에서 소식이나 오기 기뻐할 수만 없다. 74년생 복권당첨을 한 번쯤은 꿈꿔보는 대목이었으나. 86년생 망설이다가 시기를 놓치니 만회하기 어렵다.
- 토끼**  39년생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면 낭패 본다. 51년생 멀리서 구하지 말고 가까운 곳에서 찾아라. 63년생 시간이 돈이니 시간 활용 잘하기. 75년생 사소한 일이라도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있기 마련. 87년생 쉽게 얻은 재물은 쉽게 나간다.
- 용**  40년생 보람 있는 일을 하게 되니 행운이 가까이. 52년생 영업 이득이 기대보다 많으니 감사한 날. 64년생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76년생 재촉하지 말고 과정을 살피는 것도 중요. 88년생 세상이 인연 아닌 것이 어디 있을까.
- 뱀**  41년생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일이 뜻밖의 기쁨을 준다. 53년생 적당한 경쟁은 발전의 요소이다. 65년생 사랑과 믿음과 소망을 갖자. 77년생 물고기가 물을 만난 격이니 일을 시작하자. 89년생 장거리 여행을 금하고 사근거리 여행을 조심.
- 말**  42년생 무관심이 회를 부르니 작은 일에도 신경 써라. 54년생 진인사대천명이니 최선을 다하라. 66년생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히 지내야 하는 날. 78년생 산다는 것은 누구나 상처가 있게 마련. 90년생 양지가 음식 되고 음지가 양지 되는 날.
- 양**  43년생 재물이 아프면 남의 실패 아픔을 알라. 55년생 예상보다 지출이 많아질 수 있다. 67년생 좋은 일은 많은 사람에게 자랑하라. 79년생 비가와도 밖에 나가지 않으면 우산이 필요 없고 발전도 없다. 91년생 집안일은 식구와 의논해서 결정.
- 원숭이**  44년생 약속이 겹칠 수 있으니 주의. 56년생 나이가 있어도 재차 조언을 구하면 해결책이 보인다. 68년생 축의금은 무리하지 말고 형편과 능력에 맞출 것. 80년생 여행을 바라다가 박쥐처럼 일이 꼬인다. 92년생 헛소문에 신경 쓸 겨를이 없다.
- 닭**  45년생 배우자의 지지가 큰 힘이 된다. 57년생 시작이 반이니 바로 시작해보는 것이. 69년생 변화의 날이니 움직임에 신경 써 보자. 81년생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소망이 있으면 스스로 상처를 치유하게 된다. 93년생 기대만큼 성과가 있는 날.
- 개**  46년생 가족의 화목이 우선이다. 58년생 신세 진 사람에게 빚 갚을 일이 생긴다. 70년생 다다익선이라 많을수록 좋다. 82년생 복병을 만나 힘이 들 때도 힘대로 흘려보내 주는 것이 길흉화복의 길 따르는 것. 94년생 천하를 얻는 하루.
- 돼지**  47년생 건강과 행복이 나의 미래와 희망이다. 59년생 충동적 소비를 자제해야 한다. 71년생 표정 관리를 잘해야 적을 만들지 않는다. 83년생 기회가 공존하니 지금부터는 근사한 변신만이 남아있다. 95년생 학문의 결과는 분명한 결실이 있으니.



## 김상회의四季 일상이 기도

생계에 몸과 마음이 매인 보통 사람은 심신이 지칠 때가 많다. 따라서 신앙심이 있는 사람들은 각자의 종교에 따라 기도와 같은 신행 생활을 한다. 기도의 응답이나 가도가 있다고 느껴지면 신심은 더욱 깊어질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공연히 신심을 원망하거나 할 일이 아님이다. 바란다고 해서 넘죽넘죽 들어주거나 이뤄진다는 것은 기도의 원리가 아니다. 기도성취도 조건이 맞고 그 조건이 성숙된 인연에서 결과가 나온다. 그런데도 선사나 도인들은 한결같이 기도 노력을 가며 여기지 않는다. 기도는 마음을 모으는 최상의 행동이고 진정한 기도는 하심이 뿌리가 됨을 알기 때문이다. 자신의 행동과 말 마음가짐이 잘못 되었음을 인정하면서 참회는 시작된다. 과거 불교가 한반도에 처음 소개되었을 때는 말 그대로 귀족불교였다. 먹을 것 입을 것은 물론 명예와 권세를 지닌 이들의 지적, 정신적 만족을 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귀족종교로 여겨지던 불교를 민중불교로 확장한 원효대사는 진정 이 땅의 보살이었다. 당시 최고 엘리트 화랑으로서 촉망받던 원효대사가 스스로 광대와 같은 복장을 하고 불교의 이치를 노래로 만들어 부르고 다니면서 중생교화에 온몸과 마음을 다했다. "송경염불하는 중생 선신이 옹호하니 물에 들어도 안 빠지고 불에도 아니 탄다. 한 중생 초발심에 법계가 진동하고 은밀한 작은 행동 하늘에 적히도다." 출가 승려가 아닌 먹고 사느라 바쁜 평민에게 단순한 가르침을 강조하며 희망을 준 것이다. 불심 내는 그마음을 마음속에 새기면 신명이 도우시고 불보살이 지켜주시니 창성한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다. 꼭 수행처에 가서 틀어앉아 좌선 수행을 하는 것만이 수행이 아니라 일상에서 마음을 잘 단속하는 것도 큰 수행실천이 되는 것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http://www.saju4000.com)

###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3X3 �도쿠 X는 가로,세로,3X3각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7	3	8		5		6	1
	1		3				
6			4			9	
		4	7				2
	1				6		
2			6	3			
	2		3				6
				4		2	
8	6	9		5	1	3	

###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노의 알도그램을 소개합니다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8	1	9	2	6	7	9	8
2	8	7	1	9	6	6	9
9	7	6	8	9	2	2	1
6	8	2	9	1	9	7	2
7	8	9	2	8	1	2	6
2	9	1	6	2	7	9	8
8	6	8	1	2	7	2	9
9	2	9	8	6	1	7	7
1	9	7	6	2	8	8	2

###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206 2002년5월28일 제5538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642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